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第五千四百四十七號 (一)
THE CHOSUN ILBO. (THE KOREA DAILY NEWS.) SEOUL.
(日曜日) 昭和十年七月十九日 (第三版) (日刊)

社說 西南派의 失敗

一

十七日 廣東電에 依하면 余漢謀氏의 指揮下에잇는 中央軍은 同日 早朝에 市民大歡迎裡에 廣州에 入城하야 舊第二軍司令部를 占領하고 即時 第四路總司令部及 廣東經濟公署를 設置하엿다하며 江西省南部 龍川으로부터 十六日 廣東省境을 突破한 余軍別動隊는 十七日朝 韶關에 入城하엿다한다. 그리고 十八日 香港電에 依하면 余氏는 十七日 電報로써 陳濟棠氏에게 對하야 「十八日午前 零時로부터 二十四時間內에 廣州로부터 退出하라」고 要請하엿든바 陳氏는 大勢가 이미 不利한것을 覺破하고 明日正午에 各將領을 召集하야 緊急會議를 열고 「平和裡에 廣東을 明渡」하기로 方針을 決定하고 即時中央軍에 進擊停止를 要請하는同時에 第四軍 第十二師長 陳漢光氏를 海口에잇는 余氏에게 派遣하야 折衝을 進行하리라하니 刻刻으로 變하는中國政變에 關하야 무엇이라고 速斷하기는 어려우나 以上報道가 事實이라면 이것으로써 廣東의 運命은 이미 決定되엿다고 볼수잇는 同時에 廣西의 政權도 未久에 廣東同樣으로 沒落될것으로 볼수밧게업다。

二

中央과 西南과의 關係가 急速도로 惡化되게된것은 去五月 西南派의 隱然한 勢力을 갓고 國民黨의 元老일뿐아니라 理論鬪爭의 巨頭로 蔣介石氏의 强敵이엿든 胡漢民氏가 逝去한 그때부터이엿다。胡氏의 急逝로 中央에서 西南을 壓服하려는것을 잘알고잇슨 兩廣首腦 陳濟棠、李宗仁、白崇禧等은 機先을 制하려는 意味에서、또는 氣勢를 올려 結束을 鞏固히하려는 意味에서 大軍을 動員하야 大擧北上의 氣勢를 示하엿다。그 理由로는 蔣介石氏의 對日外交가 不撤底하다는것을 指摘하야 그動員軍을 抗日救國軍이라 命名하고 때마침 日本의 北中駐屯軍增派와 北中帝政問題가 惡化되고 잇슴을 機會로 全國的으로 抗日宣傳에 努力하엿다。西南側의 計劃은 抗日을 標榜하면 全國民이 그들을 支持할것으로 밋엇고 또 일즉이 蔣介石氏에게 壓服을 當하야 不平이 潛在한 雲南의 龍雲、四川의 劉湘、貴州의 王家烈等도 이 機會에 再起하야 兩廣勢力에 合流할것으로 觀測하엿스나 이들이 動치아니할뿐아니라 國民輿論도 抗日宣傳에 動하지안코 大勢는 依然 中央支持의 態度를 示하게 되엿스므로 今回의 失敗를 齎來하게된것이다。

三

反面에잇서서 中央側에서는 所謂 精誠團結、共赴國難이라는 標語下에 全國統一을 標榜하고 「國內平和維持야말로 非常時中國의 絶對必要政策」이라는 巧妙한 戰術로 [illegible] 眞摯는 二中全會에서 決定하는 平和政策을 쓰는듯하면서도 一方으로는 西南國境에 大軍을 集結하야 西南派를 威嚇하고 따른 一方으로는 買收工作을 繼續하여서 西南派의 內部分解政策을 써서 工作을 繼續하엿다。그리하야 陳濟棠氏 指揮下의 廣東第一集團軍 第一軍長 余漢謀氏의 懷柔에 成功한 蔣介石氏는 買收本部를 香港에두고 前廣東總司令 陳策、陳維周를 派遣하야 軍長級三十萬元 師長級二十萬元 團長級十萬元이라는 大金으로 買收工作이 奏功하게됨에따라 西南側은 極度로 混亂하게되엿다。이러한 情勢下에잇서 去十日부터 五日間開催된 二中全會에서는 西南政務委員會를 廢止하고 第一集團軍總司令 陳濟棠氏를 罷免하고 余漢謀氏를 廣東綏靖公署主任으로 任命하야 廣東軍權을 掌握하게한後 이番 陳濟棠의 沒落을 가져오게되엿다。

四

今番 西南派가 이가튼 運命에 直面하게된것은 첫재로 抗日을 標榜으로 全國民의 支持를 期待하엿든것이 豫期에反하야 國民輿論이 依然 中央을 支持하게된것이오 둘재로는 西南에 不利하엿스니 마치 財政的으로 大打擊을 밧게된것이오 셋재로는 廣東에잇서서 中央에 不及한 事實이다。이리하야 西南派沒落은 旣定的事實로 보이는 同時에 蔣介石氏의 中國統一工作이 一九二六年七月 北伐開始以來 滿十年이되는 바로 今年(七月)에 南北關係者로하여금 感慨無量케하는배 업지안흐리라 假使 陳氏의 武力的統一이 完成되다하드래도 西南派의 地盤이란 歷史가잇는 만큼 今後에도 여전히 問題를 남길것이다。

全軍의 戰意喪失로 陳濟棠氏失意!

飛行機四臺는 香港으로逃亡

沒落은 時期의問題

【廣東十八日發同盟】張達麾下의 第二軍의 離叛은 陳濟棠氏에 對한 致命的打擊인데 廣東軍은 아직도 第二、第一軍을 固守할陣容을 取하고잇는데 全軍은 바야흐로 戰意를 喪失하얏다 陳濟棠氏는 全혀 意氣銷沈되여 中央軍에 對抗할 元氣가 업고 其沒落은 이미 時期問題로되여잇다 一方 市民側은 벌서 戰爭은 短期에 終了되리라고 豫想하고 十七日 十九弗十仙이든 廣東弗은 今十八日에는 十七弗四仙으로 暴落하엿다

【香港十八日發同盟】廣東軍의 飛行機四臺는 今朝九時 當地에 逃亡하여왓는데 香港政廳에 抑留하엿다 (寫眞은 失意의陳濟棠氏)

余漢謀軍의主力 韶關에集結完了

陳誠軍도 始興에集中

【廣東十八日發同盟】余漢謀軍主力은 十七日韶關에 集結을 終了하고 後續의 陳誠軍先鋒도 同日始興에 集中하엿다 陳誠軍은 第一 第十四 第六 第九十四 第九十八 第五師로 編成된 中央軍의 精銳軍 陳氏는 近年剿匪에 余漢謀氏와함께 中央軍前敵總指揮가되여 잇섯다 이보다 압서 韶關으로부터 粤漢線에 沿하야 南進한 余漢謀軍은 十七日夕 源潭에 到着 英德의 第二線을 固守하는 廣東軍第四師와 暫時前哨戰을 交한後 對峙狀態에 入하엿다 同地는 左右에 山脈을 가진 北江中流의 要害地이다 他方 湖南、江西에서 侵入한 中央軍도 亦是 韶關에 集結을 終了하고 다시 南方으로 向하야 戰略的展開를 할 作戰인데 그때까지는 아즉도 相當한 時日을 要할것이다 英德方面에 잇서서 南北兩軍의 對峙는 當分間繼續될터인바 廣東軍은 第五軍殘部及 獨立旅團 獨立團 等 粤漢線으로源撤 英德方面에 增援中이다

米國無敵空軍

五個年計畫案完成

【華盛頓十七日發同盟】米國陸軍은 一千三百二十臺로 增加할 無敵空軍建設計畫을 確立하고 意見具申에서 陸軍長官은 速力이드고 注 今後五個年에 航空機를 二 實施中이며 過般休會前의 議會

寫眞說明 ▲다다넬스 非武裝地帶의 再武裝과 外國艦船通航統制權 回復을 計劃하는 몬트르會議는 去六月二十二日 開會되여 明二十日調印式을 擧行하리는데 寫眞上은 同會議開會를 宣言하는 土國代表루스추·아라스外相 ▲寫眞下는 伊國航空次官바르레將軍을 團將으로한 伊太利航空節使一行이 特別製飛行機로 去六月二日 伯林에 到着하야 獨逸航空兵을 檢閱하는 光景

東阿遠征成功後 平和國策을聲明

獨包圍反對하며 對佛協力主張

伊太利新外交政策

【羅馬十七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制裁問題의 一段落을 機會로 今後의 歐洲政局에 處할 新外交方針을 愼重히 協議中이엿든바 消息通의 情報에 依하면 今後의 新外交方針骨子는 左와如하다

一、伊太利의 外交方針은 平和를 第一眼目으로 經濟的發展을 圖하는것을 目的으로하야 조끔도 領土的野心을 有치아니함

一、伊太利政府는 集團的安全保障體制에는 反對하는 代身 佛國國境의 保障만을 目的으로하는 歐洲의 再建을 企圖하는 意向인 듯하다

一、伊太利는 伊太利와 友好的關係를 希望하는 中歐諸國과 協力할 用意를 有할

但 此는 他歐洲諸國이 反伊的態度를 取치안는限 此等諸國과 分離하야 블락을 結成할 意思는 업다 그러나 歐洲는 中歐를 中心으로하야 스스로의 再建에 努力할것이다

一、伊太利는 獨逸包圍政策에는 協力치안는다 但 獨逸과 特殊關係를 맺음은 조와하지안는다

一、佛國과는 依然協力을 必要로할 一、歐洲再建事業은 空漠한 個個의 理論에 拘泥되지안코 現實에 卽하여 此를 行할것이다 그리고 國際間의 重大問題는 各國의 妥協을 必要로하는 新協定이 適例이다

一、刻下의 國際情勢에 鑑하야 速히 一般軍縮事業의 達成을 必要로할

一、聯盟規約第十六條制裁規定을 改正할것

根本主張容認되면 調印에 欣然參加

外省、海峽會議推移重視

【東京電話同盟】몬트르에잇서 佐藤代表와 各國代表間과의 私的會議의 結果 留保條件을 附하야 行할 日本政府의 新條約參加 可能性은 高調되엿다는 報道에 對하야 十八日正午까지에는 아즉 到着되지안헛고 十七日夜半에 電送한 新訓令에 따라 佐藤代表로부터 外務省에 公電이 到着되지안헛스나 十七日夜半에 依하면 有效適切한 留保條件을 附하야 參加하려고 萬全의 努力을 다하고잇스나 非聯盟國인 日本의 特殊地位가 聯盟規約內에잇서 中央協定에 海峽되지안코 日本의 根本主張이 容認되는限 二十日의 新條約調印式에는 欣然參加하야 日本의 自主的立場은 確立되게되엿는바 外務當局은 十八日에行할 本會議의 推移에 重大關心을 가지고 示하고잇다

佐藤代表要求에 各國代表讓步

【몬트르十七日發同盟】海峽制度에 關한 條約案成立을 압두고 日本代表佐藤大使는 十七日夜 各國代表와 私的折衝을 開始하야 非聯盟國으로서의 特殊한 立場에 對하야 考慮를 要請하얏는데 各國代表도 드듸여 日本政府의 立場을 諒解하고 거의 全面的으로 佐藤代表의 要求에 同意하얏다 各國代表는 日本政府에對한 「重要한讓步」라고 稱하고잇는바 內容은 다음과 갓다

一、條約草案第二十三條 「聯盟規約上의 義務와 規行及 將來聯盟規約內에서 成立될 모든國際協約에 基한 義務를 履行하는 時에 各國軍艦은 海峽通行의 自由를 許容한다」고 잇는것을 「聯盟規約에 基한 義務遂行의 時」에 限定하얏다 따라서 자베르트黑海艦隊가 第二十三條에 基하야 聯盟規約上의 義務를 遂行하는 境遇 又는 規約第十六條第二項에 依하야 土耳其政府의 參加하는 局地協約에 基하는 境遇잇슬時에는 假令 戰時라도 海峽通行은 할수업다 佛蘇兩國間 互讓條約에는 土耳其政府는 參加되여잇지안흠으로 蘇聯政府는 同條約을 방패로 黑海艦隊를 움즉일수는 업서 事實上 黑海艦隊는 戰時黑海에 幽閉케되다 又土耳其政府는 現在海峽을 通行하는 艦船을 定期的으로 聯盟事務局에 通告하는 義務를 지게 되엿섯스나 各軍艦이 海峽通行할때마다 即時締約國政府에 直接通告하도록 修正되엿다 따라서海峽委員會廢止後도 日本政府는 蘇聯艦隊의 動靜에 對하야 一一히 情報를 接受할수잇다

一、日本練習艦이 海峽을 通行하야 黑海入港에 關하야 海峽通過에도 特히 許容하는外 特別協定書를 條約正文에 添附할

一、潛水艦의 海峽通行은 絶對로 禁止함 但黑海沿岸國潛水艦을 修理하는 境遇는 入港을 許可한다

新條約案은 日本政府의 意思는 再從할時까지 日本政府의 批准을 表示할수업다는데 잇서 佐藤代表는 十七日夜 放然히 말하다

各國代表가 日本政府의 主張을 充分히 考慮하여준것을 滿足하는 本國政府의 回訓이 到着되지 안는限 무엇이라고 말할수업스나 各國代表는 日本政府의 讓步를 要求하야 特別協定書에 調印하면 日本政府로서도 調印을 拒否할理由는 업다

東京四億五六千萬圓

明年度總督府豫算 未曾有의尨大豫算

總督府明年度豫算各局要求案은 二十日까지에 財務局에 提出되엿는데 財務局에서는 八月中에 査定을 終了하고 財務局原案을 作成할터인데 所謂重要國策案을 爲始하야 各局에 要求總額은 一億五、六千萬圓에 達할터인바 이에 基準豫算二億九千萬圓을 加하면 昭和十二年度要求豫算總額은 四億四五千萬圓이라는 空前의 大膨脹을 示하는데 財務局이 此를 如何히 裁定할는지는 자못 注目되여잇다 그러나 明年度歲入豫算은 租稅收入을 高하고 事業收入의 增收 一割平均으로 豫想하고 事業公債發行을 今年度程度로 하드라도 三億五六千萬圓에 不過하는데 差減一億圓의 歲入不足에다가 特別會計로부터 一般會計에로의 繰入問題가잇고 京釜中央線을 비롯하야 鐵道建設改良、港灣、河川改修、道路等의 改良、棉花의 增産 馬政計畫 國防的見地에 基한 通信 交通施設 石炭液化特殊鑛物의 開發等 絶對不可缺한 緊急要費를 除하면 其他所謂新規事業으로는 아모런 期待도 가질수없는 模樣이다 그런데 이에對한 各國의 要求는 相當히 熾烈한바 今年의 豫算編成도 자못 汗餘曲折을 免치못하리라고 豫想되는데 首腦部及財務當局이 이難局에 處하야 如何한 方針으로 進行할는지 자못 注目되는바 總花主義나 重要政策集中主義냐 注視를 끌고있다

自由批判에 對處 政府萬全을期圖

陸、內、司三省會議開催

【東京電話同盟】二、二六事件 以來 百四十五日의 施行된 戒嚴令은 十八日에 解除되엿다 이結果 從來禁止되엿든 二·二六事件批判 政治的集會를 自由롭게되엿슴으로 今後에 言論其他 政府의 政策批判等에 對하야 相當히 深刻한 論議이 展開될터이며 따라 政府가 國策決定에 當하야 慎重히 檢討할 必要를 느끼게 되엿스나 아직도 一抹의 不安을 남겨잇슴으로 이點에 關하야 陸軍、內務、司法三省은 戒嚴解除後의 對策에 關하야 聯絡會議를 開催하고 ...

西領모록코에 軍隊暴動勃發

【마드리드十七日發同盟】西班牙政府는 西領西班牙領 모록코·에 一部 軍隊의 暴動에 잇서서 暴動이 일어나 政府는 이를 鎭壓하기 爲하야 ...

『루마니아』國 戰略鐵道建設

【부카레스트十七日發同盟】루마니아는 獨逸의 東進에 備하야 체코슬로바키아와 交涉하야 루마니아의 베사라비아를 橫斷하야 체코에 通하는 戰略鐵道를 建設하기로 한다 三國의 意見이 一致되엿다 ...

軍需工業利潤을 地方에還元均霑

軍部當局서對策研究

農村振興課新設

總督府殖産局內에

經費百一萬八千圓으로

【東京電話同盟】朝鮮總督府에서는 ...

複座式追擊機 五十臺建造中

米國空軍大擴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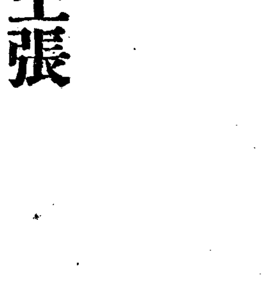
【산치에고十七日發同盟】米國政府는 太平洋의 新情勢에 適應하야 空軍擴充에 邁進하려는바 솔리데이레드航空會社는 陸軍省注文에 基하야 建造費二百三十萬弗로 複座式追擊機 五十臺를 建造하야 月末에 引渡할豫定이다 또 同社는 總額五千四百八十五萬五千百十五弗로 飛行艇百三十二臺를 建造하엿다 右飛行艇은 一九三五年코코소로馬 센프란시스코間 無着陸飛行에 成功한 上空의 精銳이다

辭令

朝鮮總督府編修官 鎌塚扶
兼任 朝鮮總督府京城高等商業學校敎授(五等)

人事·集會

▲樽田誠氏 (大阪遞信局監督課長)轉任人事次 來社
▲柳樂國氏 (日本빅타-蓄音器會社朝鮮文藝部長) 新任人事次來社

朝鮮唯一 電醫養成

現代成功의稀業
○東京電醫學校創始學長責任指導
最新最高 電氣物理醫療師
本院卒業生內鮮各地無試驗開業資格 進歩的營業의特別認可
으로成功確實 講師同僚의親切과生活의安定을保障하는
不遠內務省令도發表되며 一層大發展의豫期
夏期特別大講習生募集
募集要項急送 願書에到着을 依한다
朝鮮高等電醫講習院
京城府黃金町三ノ三四四

第一劇場
七月十八日晝間부터三日間 每日晝夜三回公演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晝映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均一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人情活劇 弓矢莊의慘劇
로바두아렌氏 호로렌스파이스孃 主演
松竹蒲田超特作品全發聲映畫
現代劇 隣の八重ちゃん
島津保次郎氏監督
岩田祐吉氏 逢初夢子 主演者大日方傳氏
蒲田總部屬網羅하名篇島津保次郎氏에大力作現代劇
스단映畫社作品無聲映畫
大活劇 魔의恐怖
다구라스、마구라렌氏主演
擔任된놀라운巨象
끈코-部隊
여러분의 電話光 二六番
第七日十八日부터超特別大封切
유니버-살超特作全發聲日本版
原作빈헐丁氏
浪漫派의巨匠폰·스텐벨크氏大作品!
國際盜賊 호텔
로날드·콜맨氏主演
엘리자베스 다이
마리 마살氏
助演
콜럼비아特作全發聲西部活劇
람바-트힐리아氏監督
西部의荒武者
바크·존스氏主演
바-바라우이크스 助演
大都映畫特作時代劇
石山稔監督作品!
肉彈鐵火隊
阿部九洲男主演
近衛十四郎 月宮乙女 助演
─大豫告─
薔薇はなぜ紅い미-라의殺人事件
의殺男子와淑女
黃金町 電光三九五
優美館

네히루모
胃腸病 其他 鹽類中毒에
福 모나-루 モナール
一朝에 治療를그릇처서—모루히네 慢性中毒으로移行하야「모루히네」奪除困難에 苦憫하시는분은 곳福모나-루療法에 依하야 確實하고 完全히 事業을하면서 모루히네類를 除去할수잇고 速히 舊健康體에 回復함으로써 恩人과 應用하기를 切望하는바입니다
(文獻贈呈)
價(皮下入)(內服入) 包裝 5管入 10管入 20管入 50管入
製造元 順天堂醫化學研究所
大阪市東區道修町
發賣元 田邊五兵衛商店
MONALFUKU

ライオン印 ラ이트인키
天下一品! 一家一瓶!
能率은 항상 라이트와 함께平行한다!
ライトインキ製造株式會社
2オンス入(スポイト付) 定價 30セン

行斷 げ下値 然斷
特別サービス付大賣出し
セイコーシャの誇り
クローム側腕卷
クローム側懷中時計
十八金側腕卷時計
十八金側懷中時計
送金は振替・又は小爲替にて願ひます
Ⓢ セイコーシャ 時計部

農事를斷念한村民 求職하러都市集中
平壤市內職業戰線에異狀

【平壤】거듭한 태양마의유린을 받은 평남도내각지방에는 논바닥이터지어 모든 전부락나옥고 잇는 農村현상의 계속으로동 사는 절망이라는 단안을 나리게되어 가을추수를 대망(待望)하고잇은 농민들은 극도의 락망으로 붙잣는것과 도가튼 초토의 황폐지화한 농촌을 뒤로 두고 직업을구하고저 도시에팡 분해오는 농민들의수가 최신증가하고잇다

평양남부직업소개소의 최근현상을 살펴보니 이런종류의 농민들의 쇄도로극히 밥분상태를일우고잇서 매일오륙명 내지칠팔명에달하여 취직전선에 대이상을보히고잇스나 극히 딱한사정은 한산한여름을당한터이라 도시에도직업처가 흔치안허 진퇴유곡에서방황하는 눈물겨운장면이 발보하여 중대한 사회문제화하고잇다

豫防注射를맛고도 腸窒扶斯로呻吟
櫻井町、九歲少女發病

예방주사를 마젓슴에 불구하고 장질부사에 걸닌실례——시내앵정정(櫻井町)이정목 백삼십오번지 동대문소학교(東大門小學校) 이년생 동소원(東小園)의 아야코는 지난오월에 예방주사를두번완전히 마젓는데 지난십이일부터앓키 시작하야 십팔일드듸여진성장질부사로 판명되엿다

헤염치다溺死

십팔일오후 다섯시가량되여 시내한강통(漢江通)에 잇는철도국그라운드「부속플—ㄹ」에서 중림정(中林町) 백구십구번지에 사는도변희삼(渡邊喜三)(二○)이라는 소년이 헤엄을치고 놀다가 심장마비를 이르키어 현장에서 즉사햇다한다。

새벽거리에선 버리 白晝에 졸다잡혀
前科三四犯의惡徒들

▼새벽밤거리를횡행하는 전과삼사범의 악도들이 동대문서서원에게 일망타진을 당하였다 십칠일고요히 잠든 새벽 네시경에 시내원남정(苑南町) 칠십칠번지 리승오(李承五)의 집에잇는 리종석(李鍾奭)이가 자고잇는방에 들어가 벽에 걸려잇는 옷오륙가지를 훔처가지고 간 경긔도 양평군 양서면(楊平郡楊西面)에 원적을둔 전과사범의 리이봉(李二奉)(二五)은 신고에 깜작놀라쪼처간 원남정파출소 한순사에게 인의정(仁義町)칠십칠번지 처마아래서 조을다가 잡혓다 ▼시내 신당정(新堂町)삼백사십팔번지최룡득(崔龍得)(三三)의집 칠일 새벽두시 수송정(壽松町) 백팔번지 여자사범학교제이긔숙사(京師第二寄宿舍)에서 자고잇든 강구(江口)라는사람의 자는 방에들어가 옷륙칠가지를 훔처가지고 종묘(宗廟)로아페서 이역시 안저조을다가 도적놈잡어가는 전긔순사에게잡혓는데 취조한결과 이자는 전과삼범이엿다고

日滿親善飛行
李貞喜孃再次計劃

이등비행사 리정희양(李貞喜)(二○)은 일즉이 동경 신경간의 왕복비행을 게획하야 지난가을에 이를 단행코자 우전비행장에서 출발직전 애긔에 고장이 생겨서 마침내 그계획은 좌절되고말엇다 그러나 리양은 어대까지 소지를 수행하고자 오는기울시일을 긔하야 애긔 청조호(靑鳥號)를 단독조종하야 일만양국의 공중의 친선사명으로 그장거를 결행하기로되어금일조선부터 또다시 우전비행장에서 맹렬한 련습을 계속하는동시에 제신국에 우계획을 통지하야왕증으로 각방면에서 이를후원하기로하엿다

京春鐵道不日起工

벌서부터 식산은행(殖銀)두취유하광풍(有賀光豊)씨의 명의로철도당국에 신청하고잇든 경춘(京春)철도는 지난십삼일날짜로 드듸어 그정식인가를 보게되엿다 이철도는 청량리(淸凉里)역을긔점으로 강원도 춘천군 춘천읍(春川郡春川邑)에 이르는 총거리 구십이//키로//이부에 그궤폭한미돌으사백삼십오의 동력증긔와 및//깨솔린//사용의것으로 그건설비총액은 구백만원에 달하리라한다

이철도의 공사는 방금진행중에잇는 중앙선(中央線)과 함께 즉시 착수할터로 이것이 개통되는날에는 춘천을 중심으로한 개발되지못한 강원도 오지일대의 지하자원(地下資源)과 그밧게 각종산업의 개발을 촉진함과동시 종래 교통긔관 분포의 희박을 한심하게 생각하고잇든 그쪽지방에 일대서광을 줄것으로 보여서 강원도의 산업교통상 일대에포—크를 지을것이라한다

寺刹境內의飮食店 境外에多數轉業
이로써風紀紊亂의弊風一掃

농촌진흥(農村振興)과 심전개발(心田開發)의 운동을따라 사찰조엄보지(寺刹嚴肅保持)는 심전개발의 중요한 제목의 하나로 되여잇서 경긔도경찰부에서는작년륙월이십오일부로 관하각경찰서에 사찰주체를 엄중히하기를 명령한바잇섯다 어재그뒤의 소식을듯건대 시내 동대문서에서는 관내에 교외적유흥지대(郊外的遊興地帶)가 만히잇는 관계상 그동안 전긔경찰부의 하명에 의하야 취체를 엄밀히한 결과 사찰건물을리용하야 음식점영업을 하든자에게대하야 즉시유고(諭告)로 폐업을 강행한 호수가열집이요 자발적으로 폐업혹은다른직업으로 전업한호수가 스물다섯집이요 즉시폐업이 곤난한자에게 지난륙월말일까지 유예긔간(猶豫期間)을 주어 경외(境外)에 이전한 호수가 아홉집에달하는현상으로 이로써 절이라는안전지대를 악용하야풍긔를 더러피고잇든 사찰은 일소되엿세이라고한다

覆審과支廳을增設 判檢事도多數增員
追年繁雜化하는裁判事務의敏速을企圖
具體案을法務局에서作成中

법무국에서는 명년도에 조선내의 검찰사무와 재판사무의쇄신과 재판사무의민속화를 도모하고저 경찰긔관재판긔관의 대확충과 재판소직원의 대우개선등을 단행하고저 방금구체안작성하야 명년도예산에 요구를하리라한다

一、복심법원하나를 증설한다 즉 현재는 경성지방법원의 관내인 한남북지방에 복심법원을하나증설하야 이지방최근의발전에호응케한다

一、공주(公州)지방법원의 대전(大田)의원설치

一、중요지방법원의 예심판사의 증원과 중요지방의민형사부의 분리확립

一、중요검사국의 검사증원

一、중요한 지방법원지청에 합의공판부의 신설으로묵각재판소의 단독부판사의증원

등을 단행할터로이것의 전반적 실현에는 상당한 거액이신규로 요구될터인데 금후재무당국과의 절충이주목된다 대체조선내의 재판사무는 민형사사건을통하야 판결이확정되기까지에는 매우시일이 길게걸리어 재판관계자의 불평적 정신적타격이탐으로 사법성의 사법사무의 신책과 직원대우개선의 실현을 긔회로 조선에서도 이것을 실현시기어 보려는것이라한다

朝鮮風景宣傳
懸賞寫眞募集

총독부 문서과에서는 조선을널리 선전하는의미에서 조선아마추어사진관영을 시키어 현상사진을 대대적으로 모집한다는데 사진대상은 풍경과 각종시설기타각방면의것을 널리망라케하야 입선되는것을가지고 경성과 동경에서 전람회를열며 일반사진잡회엽서(繪葉書)등도 맨들터이라는데 금후 약일개월간에정으로 모집하게되엇다한다

平壤의一部肥料商 破産狀態에直面
料亭과花柳界도寂寞

【平壤】수십년이래 처음보는흉년의 대한발은 비단농촌뿐아니라 도시방면에도큰비애를 면치못하고잇서 상가(商街)의한산은 물론 료정(料亭)과 화류계(花柳界)에까지 적지안한타격을 주고잇는현상이나 제일만흔 타격을밧고잇는것은 비료상(肥料商)들이다 비시비긔(施肥期)이나 이앙못한면적이 수만정보에달하고 이앙한곳도 비가오지안허 비료를뿌릴수가업게되엿다 이때문에 비료는 팔리지안흘뿐아니라 앞으로일주간을 이대로 한발이계속하는때에는 전연시비긔를일코 말게되므로 비료수용률이 격감할것만은 사실이어서비료상들의공포는 큰바잇고 이때문에 큰손해를당하며 일부비료상인들은 파산상태에 직면한터이라한다

黃牛뿔에바처危篤

【開城】부외청교면 양릉리(府外靑郊面陽陵里) 리원오(李元五)(三三)은 지난십오일 오후일곱시경에동면 유릉리(同面裕陵里)천양고개(千兩峴)를 너머오는중에 마침는위에서 비탈구지를내려오는데 소한마리가 뛰여나려오는데 차부되는 상도면 동악리(上道面東岳里)사는 주씨(朱氏)는 소를몰고가다가 몰리고함을 칠으로 전긔원장은 멋도모르고 뿟장으러달겨들다가 황소뿔에 오복부(腹部)를 뚤시비처 혼수상태에이른것을 즉시부내 고려의원(高麗醫院)에 입원시켜 응급치료중이나 생명이 위독하다한다

男便업는틈에 젊은안해逃亡

고양군은평면홍제외리(高陽郡恩平面弘濟外里) 팔십륙번지 박흥복(朴興福)의처 리연희(李姸姬)(二○)는 십오일아츰 열시경 남편업는틈을타서 맹호숭(孟虎承)(一)을 다리고 어대론지 자최를감추엇다하야 본정서에수사원을제출하엿다한다

咸南道內個人所得 二千萬圓을突破
所得稅도五十九萬圓

【咸興】함흥세무감독국의 집계한바를보면 금년도 제삼종 개인소득세는 오십구만일천여원이나 되는데 이를 전년의 오십삼만원에 비하면 약일할 칠만원이나 증가 되엿다 그리고 소득총액은 이천팔백륙십만원으로 전년도의 이천백륙이십일만팔천원에 비하야이백사십만원의격증이다

三百土兵來襲

【奉天支局】당지원부본부래(圓部本部隊)에드러온 보고에의하면십오일 정오경에 안봉선련산관(安奉線連山關)서편약팔키로지점에잇는 대유림구(大楡林溝)부근에서중대 토비대금전○대(中討伐隊今田○隊)는 이백여명의 마적에게 습격을당하야 금전(今田)대위는즉사하고 부하륙명은 부상을 당하얏다는데 이급보를 접한련산관진구견○대(津久見○隊)는현장에 급행하야추격중이라고한다

年所得額으로본 慶南北道民의富力
自八百圓至五十萬圓所得額者가一萬二千名
景氣好轉의反響?

【大邱】만주사변이래로 점차로 경긔가 회복되여오든바 최근에로 더재벌의소득이 무척격증한다고한다 대구세무감독국의 조사로보면

所得額	人員
八百圓以上	四八五名
千圓以上	五八〇〇名
千二百圓以上	三六三六名
千五百圓	三三五八名
二千圓	三五二八名
三千圓	一九一二名
五千圓	二二四八名
七千圓	八〇九名
一萬圓	五〇六名
一萬五千圓	三四六名
二萬圓	二二七名
三萬圓	一〇〇名
五萬圓	五七名
七萬圓	一四名
十萬圓	八名
二十萬圓	五名
五十萬圓	二名

부호가들의 소득액은 해마다꼬리를물고 증가되는현상인데 소화구년도에 잇서서 소득액(所得額)팔백원이상으로부터 오십만원이하가 이만일천오십칠명이든것이소화십년도에잇서서는 이만삼천구백사십삼명으로 일약이천구백륙명이격증되여 총세금이 일백이십사만사백팔십삼원이라한다 이와기티 부호가의 소득액이 붓는것은 호경긔의 영향인바 최근수년이래로 쌀갑시 점차로천정을모르고 뛰여오르는 반면에 비상긔가절비하야감을따라 군수품(軍需品)이 각방면에호경긔를 연출하고게라고한다

경상남북도 소득액수자는 아래와가트며 대구부내에잇서서 소득액최고자는 리장우(李章雨)십칠만오천원이 제일최고이고 그다음으로 정재학(鄭載學)십삼만원 서병국(徐丙國)십삼만원 소창무지조(小倉武之助)십이만원 서병조(徐丙朝)정해봉(鄭海鵬)각구만원등이 가장최고층의소득자라고한다

運動競技

競技場遂完成
總費五千萬馬克

【伯林十八日發同盟特派員】第十一回올림픽大會를 目標로 하야 四年間의 日數와 三千萬馬克을 비롯하야 올림픽村의 一千四百萬馬克、道路五百萬馬克、또는「킬」의 設備費百萬馬克 裝飾에 五十萬馬克 總計五千九十萬馬克의 巨額을 던서建設를 急히하고잇은 올림픽諸設備는 會期切迫과함께 漸次完成에갓가워든바 大會場의 中心인 大競技場은 完全히 設備를 終了하엿다 그리고 十五日工事請負人의 손으로부터 正式으로 올림픽 委員會에 引渡되여 只今은 다만 選手들을 기다리고잇슬뿐이다 完成된 競技場의 壯嚴한設備와 이곳을 中心삼고 아름답게 새로히생긴 저자(市)는 이곳을 訪問하는 사람들의눈을 다시금놀라게한다 그外에도 競技場의 人氣는非常하야 每日平均三萬人以上의 觀覽者가 雲集함으로 委員會에서는 五十人을 一團으로한 案內人으로하여금內部各所를 親切히 觀覽식키고잇다

留學生對培材럭비戰
昨日의養正戰中止

鄕土訪問의 東京留學生럭비團對養正高普戰은 十八日午後五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行할豫定이든바 이날兩軍의 不得已한事情으로 對戰을 中止하엿다 그리고 今十九日午後五時半부터는 培材俱樂部팀과 對戰한後 新義州로 轉戰할터이라고한다

對大分高商戰에
京城醫專快勝

【福岡電話同盟】全日本實業專門野球西部豫選第二回戰의 京城醫專對大分高商戰은 十八日午後二時半부터 椿野(球)杉所、岩見(壘)三氏審判、京城醫專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七對二로 京醫專快勝하엿다

旱害酷甚地는 安州와平原
代作物을强制播種

【平壤】태양마(太陽魔)가 사정업시 방사하는 살인적열파(殺人的熱波)는 평남일대에 여지업는비애를 제공하고잇서 농사못짓고 올묘수가말라부터 공포에 떨고잇슴은 루차보도한바어니와 여전히 비는나리지안코 세이게 나려쪼이기만하여 삼십록도를뛰여넘고잇는터이다

현재평남도농무과에서 조사한십오일 평남도의도작상황(稻作狀況)을 드려본다면 비교적용수의편이만흔 미림(美林)、망일(望日)、동화(同和)、은산(殷山)、청룡(靑龍)등 다섯수리조합의 몽리구역일천삼백오십정보는 평년작보다 이삼할의증수를 예상하고잇고 유월초순까지이앙을 필한면적은 일주일이내에 다량의비가오면 평년작이나상상되며 유월이후 이앙한 면적도 비가만히오면 평년작의삼사할감수를 예상하고잇다 그러나 이앙못한 구천여정보의 몽리구역은 절망에 갓가우나 일주일이내에 큰비만잇다면 지금이앙해도 평년작의 삼、사할웃수확할수잇서서 농민들은 비오기를기다리고 대작물(代作物)도파종하지안코 기다리고잇는터이나 이제 파종을못하면 전연희망이업기때문에 강제로 집꾸파종을시행할 의사를 가지고잇다 비업서 피해가 가장만흔 안주(安州)평원(平原)량군에는 구제사업을 일으키어 입은을 산포하여 구제하기로 도당국에서 계획을 세웟다한다

"아이스·케익"속에 大腸菌이우굴우굴
平壤市內에서一齊檢査結果

【平壤】적리병환자의 속출로인하여 평남도위생과에서는 가두에서 팔고잇는음식물의 검사를 개시햇는데 그중에서도 평양부내에서 제일유행이만라는『아이스케이』업자 이백륙십명을일제히 검사한결과 합격된것은 사십구건 남어지이백오십칠건에 대장균(大腸菌)이 우굴우굴하고잇서서 취체할『떠—센트』가 불합격의위험물으로 판정되엿슴으로 평양서와련락하여 엄중한취체를 하기로되엿다

호랑이 업는 산골에 토끼가 왕노릇을 한다고, 딴은 그럴법! 얼마나 땀띠들곳이 군색하기에 박연(朴淵)을 차즐것이며 작이나 척서할길이 업기에 일홍도 성도 업는 청룡폭(靑龍瀑)이 뛰여나와출라고。 제동무리들모르는 창룡(蒼龍)은 박연(朴淵)보담 나흐줄 뻐내것만 알녀슨 참새를 장라고떠들고 상투잇는 종달새를다시업시 추는폭이 얼꼴가즈무리운 창룡폭이언만 볼상업시 초라한 제꼴은 짐작하는 모양. 푸른봉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치솟는데까지는 그럴듯하지마는 배를 따에부친대로 득천(得天)을 한다는대는 헛풍으로 한목보는 창룡폭도 참아 엉터리는 못부리는게지。 배를 따에부친 폭포쯤이야 삼남에서는 일홍도안부쳐주는 무며올개, 허리가아과 옷주울 판이니이것을가지고 조타 나뿌다 이렁성거리기는 모기를 보고 환도를빼는격。 박연과 창룡폭두 친구시비는 가마귀웃자랑、난쟁이 키내기、옥신각신이 덜기만 한구료! 시원한내이약이나 병수삼아한잔식자시우。

남해도 멀리떠러저 수로로천리 장성、데로부터 봉래(蓬萊)、영주(瀛洲)、선의 고장으로 일홍이 노픈남해의 고도(孤島) 제주도(濟州島)。 한라산(漢拏山)의 남쪽바다갓、서귀포(西歸浦)에서 외편으로 떠러진곳에 일홍도 갸륵한 천지연비폭(天池淵飛瀑)。 동편쪽으로 돌리산속에 팔십여척 전쫑이로부터 옥주렴을 거려두엇드관은 폭지에서는 모조흔 폭。 남편으로는 망망한황해(黃海) 동편으로는 가업는 태평양, 휘모라치는서 놀한해동。 박연(朴淵)창룡(蒼龍)이머리를 들건가?

三南應答一 濟州天池淵飛瀑

三南(慶尙·全羅·忠淸六道) 中部(京畿·江原兩道) 西北(平安·黃海·咸鏡五道) (投稿歡迎)

高熱나는病에
肺炎、流感、마라리아、窒扶斯、猩紅熱、扁桃腺炎、産褥熱等 熱病

이기나뽄은 마라리아菌을 죽이는 키니—네를가지고 만든것으로 肺炎과 流感及其他熱病을 내는菌을滅케하고 그리고 一方으로는直接으로 熱을내려서人體가 天然으로가지고잇는病毒 이기는힘을 强하게하는것이다 故로 이러한 種類의病에는 아모걱정업서도 기나뽄을 注射하기를 이저서는안됩니다 多數한 醫學大家가 實驗하야 此等疾病에 效果가絕大함을 證明하신바이다

기나뽄 キナポン

用法 種類 定價

發賣元 大阪市東區道修町三丁目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好職業 男女適近不問自宅新事業○動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 文社

ランランポマード
란란포마드는
油髮이 大端히 좃습니다
香氣도 大端히 좃습니다
그래서
大端히 評判이 좃습니다

京城版

纛島와往十里一帶도 水防團組織待機
假想水防演習도擧行

한강물이 서울에 불으면 뚝섬(纛島)마포(麻布)가 제일먼저 위험에 빠지는것은 매년가티반복되는 사실이어니와 이것이 서툰아홉자에 달하면 경성에 편입된 군부각동리(郡部各洞里)가 모다 침수되어 인축의 생명에 적잔흔 위협을주고 잇슴으로 홍수난(洪水難)에 제일 부닥기는 뚝섬일대의 소관서(所管署)인지내 동대문서에서는 작년오월사일 총독부령으로 전조선에 수방단규측(水防團規則)이 발포된이래 이중임에당할 수방부대편성(水防部隊編成)에 노력중이든바 얼마전에 부대편성을 마치고 십칠일오후 한시부터 경성궤도회사 뚝섬유원지(京軌纛島遊園地)압 한강모래판에서 뚝섬수방단 제일회 가상수방연습(假想水防演習)을 거행하엿는데 관내에는 뚝섬외에 왕십리(往十里)파장(派莊)청량리(淸凉里)각주재소에도 수방단을 편성하고 닥처오는 수해에 만전의 준비를 하고잇다

郵便局利用展覽會

체신국에서는 오는이십이일부터 오일동안 시내삼월 백화점에서 우편국을 리용하는전람회를 개최하리라한다

惠化簡易敎育講習會 町民의義捐遝至
惠化公普內서開催

서내혜화공립보통학교(惠化公普)안에잇는 혜화간이교육강습회(惠化簡易敎育講習會)에서는내용충실을 도모하기위하야 린접명륜정(明倫町)총대김태훈(金泰勳) 혜화정총대청산(靑山) 혜화공보교장 소야(小野)제씨가 발긔가되여 지난륙월일일부터 일반정민으로부터 긔부를 모집중인데벌서 모집된금액이 일백오십원이넘으며 모집긔한이 이달말일까지이니 일반은 보통학교에갈수업는 가여운자녀들의 교육을위하야 만흔긔부를 하여주기 바란다고한다

男便의虐待 重傷한己妻

【開城】부내북본정(北本町)룡교(楓橋)부근에사는 림정칠(林正喆)(假名)(三○)은 작년팔월에 김덕순(金德順)(二○)이란녀자를맛나 본처로삼고지냇스나 원체성질이 방종한그는 아이까지밴 전기덕순을차버리고 홍등거리로 다니며 불의의사랑을 꿈꾸기를일삼든나머지 요지음은 부내원정(元町)모음식점에잇는 박옥순(朴玉順)(二○)과눈이마저 또다시 그곳에다 사랑의씨를 배게한후 일체본처에대하얀 돌보지안을뿐더러 구박이자심함으로 전기덕순은 남의집에 고용녀노릇을하고 지낼지언정 그를남편으로 밋고살수는업슴으로 나가고자 여러번결심하얏스나 그래도 뱃속에든자식만은 이집에나어주고나가는것이 떳떳한안해로써의 도리라 생각하야 오날까지 본의아닌부부생활을 하야오든중 약한달전에 그는아이를 나허주고 남의집 젓어머니로 가고자하얏다한다 그러나 어머니되는정에 참아피땅이자식을 떼버리고 가기가불상해 아이까지안고 남편의집을나서서 정처업시 집집으로 떠돌아단이다못해 할수업시 지난십륙일 전기어린아기를 남편의양복점에 맛기려왓든바 전기정길은 댓자곳자로 달겨드려 덕순의 아랫배를 구두발길로사정업시거더차 아래로 피를쏫고 혼도되는것을 때마츰지나가든여러사람의도움을받어 근처 중앙의원(中央醫院)에 입원치료중 생명이위독하다한다

日曜講話

◇覺皇寺 午前十一時 菩提道場 朴聖龍 氏
◇宗橋敎會 午前十一時 홀꿈 氏 復興 午後八時 홀꿈 氏
◇石橋敎會 午前十一時 指導者이신예수 朴淵瑞 氏 午後八時 失敗者를도아심 金鎭浩 氏
◇南大門敎會 午前十一時 예수의義憤 金英珠 氏 午後八時 罪의始作 金英珠 氏
◇阿峴敎會 午前十一時 『滿足』 梁明煥 氏 午後八時三十分 『眞情의淚』 李鋼相 氏
◇尙洞敎會 午前十一時講話 밀너 氏 溺死하는사람 生命의價値 梁明煥 氏
◇中央敎會 午前十一時 『眞正한福音』 沈明燮 氏 午後八時 『女宣敎事業에對하야』 朴陽斌 氏
◇宗橋禮拜堂 午前八時 米國南監理敎會大說敎家요大復興家인 『홀꿈』 氏
◇貞洞第一禮拜堂 午前十一時 살피라 金鐘宇 氏 午後八時 깨라 李鎭亨 氏

二重誘拐中 救助된農村少女
仁川署에서保護送還

【仁川】직업을 구하야준다고꾀여내 농촌소녀를 또다시 유괴하다가 발각된사실=충남(忠南)보령군(保寧郡)오천면(鰲川面)갈현리(葛峴里)정완순(鄭完順)의사녀 여청섭(呂淸燮)(一七)이란 소녀를 지난십일경 홍성군(洪城郡)북면(北面)신정리(新井里)음식점하는 김은식(金殷植)(三三)외에 한명이 전기정씨를 차저와서 자기친족이 경성에서큰고무공장을 경영하고 잇스니 청섭이를 취직케하야준다고 감언리설로 꾀이여 지난십이일 경성까지데리고온후 조흔자리가 업스니 인천방적회사 여직공으로 취직시켜준다는것을 구실로 인천까지 데리고와서 룡리(龍里) 인신(仁信) 여관근방에 투숙하고잇는것을 또다시어떠한자가 꾀여내여 지난십오일 유곽에 창기로매계자하는것을 전기소녀가 눈치를채이고 소관파출소까지 달녀와서 이뜻을고하자 그즉시범인을 차젓스나 발서어대로인지 종적을 감초고말엇슴으로 엄중수색하는일방 전기소녀를 본적지로 보호송환하얏다는대 한발로 민심이 흉흉한 농촌을 침범하는 유인마에 가장주의할일이라한다

伯林올림픽畫報

⑥ 獨逸交通部中央鐵路總局發

上은 四百米허들의巨人 웨그나君(×票) 中左는 五千米에有望한오벨하오저君(獨) 中右는 마라손・런나ー요세파라아君(秘露) 下는 올림픽마스의練習光景

徽文庭球快捷 對白友俱樂部戰

東京白友庭球俱樂部對 全徽文高普의 歡迎庭球戰은 十八日 午後四時부터 徽文高普코ー트에서 열리엿는데 白友軍의 李圭雄、金浹周組 孤軍奮鬪하야 第二라운드에 드러갓스나 徽文에게 壓倒되여 白友軍 敗北하엿다

【白友】　【徽文】

(第一라운드)
× (崔潤洙 崔炳宙) 1…4 (裵裕憲 金亨泰) ○
× (金善周 柳海鵬) 2…4 (李景鐘 元大奎) ○
○ (李圭雄 金浹周) 4…1 (盧誠鎬 南宮鐘) ×
× (姜伍俊 李先徽) 2…4 (申東晟 金鍾進) ○
× (金珍泰 鄭陣斗) 2…4 (閔丙琮 洪性熙) ○

(第二라운드)
× (李圭雄 金浹周) 3…4 (裵裕憲 金亨泰) ○

拳鬪代表李君 올림픽村서猛練習

【伯林十六日發同盟】日本올림픽拳鬪代表는 伯林에到着後 올림픽村內에서 毎日獨逸의「프로・트레인너ー」를相對로 猛練習을繼續하고잇는데 李奎煥君外 各選手는 元氣旺盛하야「프로・트레인너ー」는二名을 모다넘어트리는等 意氣와鬪志는滿滿하야잇다

伯林↓東京間의 直通無電開設

伯林올림픽大會 開幕을 압두고 遞信省에서는 올림픽・뉴ー스電報를 一秒라도 速히 一般에게 알리려고 일즉부터 伯林↓東京間의 無線直接連絡을 準備手續中이든바 마친내 二十一日부터 開始하기로되엿다 從來 伯林과 日本의 無線連絡은 名古屋中央電信局에서 行하엿는데 올림픽뉴ー스의 洪水로 因하야 小山送信所、福岡受信所에 새로히 二十키로와트의 短波長 無線電信裝置를 增設하고 올림픽・뉴ー스專門施設로하야 이送受信所로부터 直接 東京電信局의 地下케ー블로 連絡하기로 되엿다 이新銳無線連絡은 高者度通信으로 一分間 四百字以上이란 通信機能을 發揮할것으로 伯林스타디엄內에 增設한 臨時局으로부터 打電한 뉴ー스는 伯林中央電話局을거처 寸秒內로 電波를 通하야東京에서受信할수잇게되엿다

東京招致好轉 副島伯과「라」博會見

【倫敦十七日同盟特派員發】次期올림픽東京招致運動을 하고잇는 日本올림픽委員副島道正伯은 十七日朝 倫敦에到着 라트르博士의努力으로 東京招致는 依然好轉을보이고잇는모양이다 即副島伯의會見은 十七日午後七時부터 하이드파크호텔에서 約一時間半에亘하야行한바 會見後一切을外部에말치안키로 約束하고헤여젓는데 副島伯은 다음과가티말한다 라트르博士는 東京訪問當時와 조곰도 氣分에變化가업다 果然熱心한 日本의支持者인것을 알수잇섯다 라고말하며 十六日의 悲觀說에 比하야 樂觀的態度를 보인것은 「라트르」博士와의會見結果가 極히 滿足한것으로 東京招致는 有力하게되엿다 듯는바에依하면 「라트르」博士는 今春歸國하야 各國委員에게 極히公平히 東京에好意잇는有利한 報告書를 發送하엿스며 文書投票에依하야 約二、三十의大部分은 이미發送한모양이다 英國의立候補를모르는나라도 만흔모양으로 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에는 東京이 有力할것으로豫想된다 副島伯은「라트르」博士와의 會見으로 勇氣倍加하야 十九日 英國國際올림픽首席委員아바데아卿을 訪問하고懇談을할모양이다

日本陸上一部追加

【헬싱키十七日發同盟】芬蘭「헬싱키」를 中心삼고 各地에轉戰中인 日本陸上代表陣은 十七日「헬싱키」에서 首腦部會議를열고 올림픽 申込最後의決定을 行한바 지난 十三日會議에서 決定한「엔트리ー」에다음과가티 一部를追加、變更하엿다 ▲四百米繼走=大島、田島 ▲千六百米繼走=富江

走幅跳에 決定하엿든 古田選手를 高跳路로 變更하엿다 其結果追加變更된 種目에 出場할選手는 다음과갓다 ▲四百米障碍=吉岡 谷口 鈴木 佐佐木 矢澤 大島 田島 ▲千六百米繼走=淺田 今井 相原 張景儀 市原 青地 富江 ▲走幅跳=戶上 原田 田島 ▲百十米障碍=村上 淸水 古田

水泳同友會軍 開城大會에遠征

開城高麗青年會主催의 第二回全朝鮮水上競技大會는 今十九日午後一時부터 開城府營풀에서擧行할터인바 이에出場하는 昨年의覇者 京城水泳同友會軍은 同會長李泰益氏引率아래 連覇의意氣로 開城에遠征하엿다 監督趙英河 主將金載榮 選手李昌吉 ◇自由型李熙鍾 金鍊 金載榮 ◇背泳吳振榮 ◇平泳盧貞鎬 康龍文

今日의運動

▲럭비=東京留學生對培材俱樂部戰 午後五時半 京城運動場(觀覽無料)
▲庭球=東京留學生白友庭球俱樂部對專門校選拔軍戰 午後四時 京城運動場
▲水泳=開城高麗青年會主催第二回全朝鮮大會 午後一時 府營풀

涼味溢る、特輯讀物號!!

食料品の作方三百種

(全部御家庭で手輕に作れます)

▲家庭에서必要한食料品은、主婦의손으로만드십시오。衛生的이오맛이조코、그러고도市價의半額이나三分之一의費用으로됩니다。이附錄에는누구에게나손쉽게되는緊要한食料品의製法만을、約三百種이나公開하엿오。今日부터 곳 所用이됩니다。아못조록速히利用하십시오。

【別冊附錄】 內容

▲果物や野菜のジャムの作り方十種……
▲病人にも喜ばれるジェリーの作り方三種……
▲美味しいマーマレードの作方五種……
▲ジュースとシロップの作り方十四種……
▲果物や野菜の罐詰の作方十五種……
▲菓子の材料向の砂糖煮の作方四種……
▲簡單なバターやチーズの作方四種……
▲ヘットやラードの上手な作方四種……
▲ハムその他肉類加工品の作方九種……
▲美味しいソース類の作り方十六種……
▲カレーやソースの素の作り方十三種……
▲美味しいホットケーキの素の作方……
▲野菜魚貝肉類の佃煮の作方五十種……
▲味の素になるスープの作方七種……
▲美味しい煮出汁の簡單な作方七種……
▲食欲を進める美味しい嘗物十五種……
▲風味のい、自家製蕃辛の作方九種……
▲手輕に出來る野菜や果物の作り方九種……
▲重寶な干野菜や干物類の作方七種……
▲美味しい粉類の作方十種……
▲簡單に出來るパン類の作り方六種……
▲野菜果物の酢漬の作り方十八種……
▲梅干や紅生姜などの作り方十三種……
▲保存のきく野菜や花の鹽漬十二種……
▲風味のい、芥子漬やわさび漬七種……
▲野菜と魚肉の味噌漬の作方十一種……
▲福神漬その他の醬油漬の作方十五種……
▲野菜や魚貝類の粕漬と麴漬十六種……
▲簡單に出來る甘酒白酒の作方四種……
▲衛生的で美味しい納豆の作方祕訣……
▲甘藷でも出來る水飴の作方……
▲思ひつきの食料品の作り方十三種……

夏から初秋への生花十種

總雜誌コドモノトモ 流行の總絞り女物秩父銘仙三百反贈呈の大懸賞發表!!

大評判の八月號

主婦之友

夏の浮世繪名作エハガキ集贈呈

女工さんの戀愛と結婚を語る座談會

▲海底の戰慄と怪奇を語る潛水夫の會
▲日本海上の一孤島に海女の生活を探るの記
▲燈臺の聖母トラピスト修道院の生活畫報
▲山や海へ行く婦人の魅惑的な新美容法
▲五十餘人の婦人を誘惑した男の懺悔の手記

山や海で愛兒を死なせた悲劇家の母の涙記

特輯色刷 海の鎌倉涼風帖 (繪 宮本三郎)

長篇小說 人妻椿 (泣けて泣けて仕方のない大評判の悲劇小說) 小島政二郎
長篇小說 男の償ひ 吉屋信子
長篇小說 あね、いもと 片岡鐵兵
長篇小說 女性の冠 中野實
長篇小說 眞實一路 山本有三
長篇小說 菩薩の花
繪と小說 マダム探偵帖

長尾博士 ▲男女の兒を自由に生む方法、
▲肺病の衰弱を二ヶ月で回復する祕法
▲失敗がちの夏の妊娠とお産の注意
▲表情自由の童踊人形の作方

實際指導 婦人和服物の早縫の研究

和服裁縫의名人이 누구나가르치지안는 早縫法의 祕訣을 特히 主婦之友에 全部公開한 實用記事외다。

名作歌劇 モンテクリスト伯爵
高杉早苗 奧様サービス術
彌次喜多登山
夏の色刷漫畫大會

五十錢(送料六錢) 東京神田駿河臺

主婦之友社

産業

咸南山地帶에 藥草를大量栽培 年五十萬圓收益豫想

火田民救濟策

【咸興】過三年間 冷害로 飢饉하고 잇든 咸南道山地帶火田民救濟의 一大計劃―咸南道當局農林課에서는 今年度에 甲山、三水、豊山의 三郡內 一萬町步에 人蔘、芍藥 胡麻等의 藥草를 栽培하기로되엇는데 이에서 나는 收入總額은 約八十萬六千圓을 豫想하고 잇서 肥料代、荷造費等모든 費用을 除外하드라도 年五十萬一千圓의 大金이 굴주린 火田民의 품속에 드러가게되리라하야 火田民救濟에 良策이라고 一般은 期待하고잇다고한다

國立種羊場을 兩處에新設

經費二十萬圓을要求

緬羊增殖은 對滿通商擁護法發動에依하야 一層 時代의 寵兒로되어 朝鮮의 增殖計劃도十個年十萬頭計劃을 一躍十個年五十萬頭로 擴充하기로 決定하얏는데 總督府에서는 이와 倂進하야 國立種羊場을 西朝鮮과 南朝鮮에 新設하기로 決定하얏다 初年度豫算으로 農林局에서는約二十萬圓을 要求하기로되엇다

六月中開城貿易

【開城】開城의 六月中貿易狀況을 開城商工會議所의 調査에依하야보면 總額九十九萬九千五百六十七圓으로 前年同期九十萬六千五百七十四圓에 比하면 九萬餘圓의 增加인데 그品種別輸移出入을 示하면 다음과갓다 (單位圓)

類別	移入	移出
穀類	[illegible]	[illegible]
植物類	[illegible]	[illegible]
糖類	三、八〇四	八九
酒類	三一、六一三	三九、八〇一
調味料類	三〇〇四	七五一
野菜及果物類	八、二九五	五七、五四八
海産物類	一六、八二三	四、一二五
其他飮食物類	八、〇〇五	五、五〇三
織物及絲類	一四七、八六四	四四、一三〇
衣類及裝身具類	三二、三七七	三八、六五五
文具及雜貨類	九、五〇九	一、〇〇六
紙類	二四、五九五	六、三三二
油類	三三、三五五	八二四
藥品類	一八、三五五	四四、九六二
고무及手皮類	一七、四四九	一〇、一六四
木竹材類	二七、五九八	八、三五八
陶磁器硝子類	一三、九二三	一三、〇五八
建築材料類	一八、一六六	一三、〇二三
農具及肥料類	五四、〇五六	一〇、四四五
鑛物類	三二、三六八	七、六九八
機械類	五四、四四八	八、一七五
燃料類	三三、〇二九	九八四
其他雜品	九四二	一八、三二三
合計	六六八、三二七	三三八、三〇〇

品名	輸入	輸出
石炭	二一、三一〇	―
大豆粕	二三、三五五	―
粟	二六、〇九五	―
紅蔘	―	三三、五九〇
白蔘	―	四〇四
에키스	―	一六
白菜種子	―	三三
書籍	十	二二〇
荷札	―	八六
雜品	六	一、一五一
合計	三三、六六六	三四、四四一

河豚燻製와 明卵마요네스

元山水試에서研究

【元山】元山水産試驗場에서 ○野技手는 從來버리든 白魚子물을 利用하야 醬油製造에 成功하야 지금은 그 生産의 經濟的打算을 研究中으로 그結果를 一般이 注視하고 잇거니와 同技手는 또昨年부터 明太卵의 『마요네-스』製法을 研究하든바 그結果가 良好하야 不日間 商品으로서 市場에 내노케되엿다고한다 이밖게 同技手는 河豚의 燻製도 研究中이라는데 이것이 市場에 나오는날을 期待하고잇다고한다

유리그릇

입으로먹어 서늘하고 몸에품기어 서늘하고 귀로들어 서늘하고…… 서늘한것에 여러가지가 잇지만 눈으로 보아 서늘한것도 서늘한 품수론 다른것에 못지안흘것이다 茫茫滄海의 검푸른 물결과 深山幽谷의 구슬빛는 물줄기도 그러러니와 여름철 淸凉飮料에 유리그릇도 누라서 보아 서늘타 안하리 사람은 文明하두새 感覺으로 만히산다 서늘한 飮食엔 서늘한그릇이제 格이거든 어름冷水에鍮器그릇은 갓쓰고 구두신는 格이라 亦是 유리그릇에 담어야 서늘한맛이 도칠것이다

·救家庭에서도 漸次 유리그릇을 쓰게되엇다

회채대접도 그것이오 冷水컵도 그것이오 생나물 접시도 그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것은 極히 적다 朝鮮안에도 유리工場이 거이 二十을 算하나 모두가 아직 小規模로 日本內地로부터 가저오고잇다 그러나 全南과 黃海 兩道의 海岸에는 유리原料인 良質의 硅砂가 無盡藏에 갓가우리만치 만히잇서 朝鮮의 유리工業은 將來가 囑望되고잇다

軍事費의膨脹과 國民生活安定問題

兵農財三全主義安在?

近代國家의 財政은 結局 軍事費와 社會政策的施設로 消費하리라는것은 財政學者들이 부르짖는바이어니와 現在 日本의 財政을 볼지라도 數字的으로그 傾向을 말하고잇다 單只、日本의 豫算編成에잇서서는 國防費의 數字가 너무 크기때문에 所謂 社會政策的의 項目은 그리 눈에 띄이지안흐나 豫算編成期마다 農村을 爲하야 提唱되는것은 國防費에 相對하야 農村의 救濟策이고 中小商工業者의 不況打開策이것으로보면 結局 社會政策的施設이라는것은 救濟策에 類似한것으로 現內閣이 提唱하는 國民生活安定이라는것도 結局 이範圍에 벗어나리라 國防費라든가 社會政策的施設、國民生活의安定이라하야도 그 經費의 大部分은 不生産的部門에 도잇슬것은 再生産的事業에 使用되어 가아니라 보이면서도 結局 財政負擔이 漸次로 過重하야질것이다。

……◇……

最近의 軍事費增加에 依하야 그 餘澤을 享受하는者는 一部와 이에 關係잇는 一部와 上層階級뿐으로 一般大衆 特히 農村에서는 生活이 向上하얏다는 소리를 듣을수업다 歷代內閣은 恒常 救濟策을 講究하야 一時를 彌縫하는 態度를 取하고잇는데 막상 그根本策을 樹立하게되면 아마 國防費以上의 支出을 하지안흐면 안되게될것이다。다시 救濟策에서 一步進하야 文化的施設의 遂行으로 나가는데에는 財政의 負擔은 國防費를 否定하는外 엇는道勢에까지 이르게 될것이므로 所謂 兵農財全主義 或은 兵農財의 三全主義는 現實에잇서 期待할수업는 問題이다。

……◇……

廣田內閣은 庶政一新을 看板으로 一步 내걸기는하얏스나 그前途에 難關이 重疊하야잇다 國民生活의 安定策이라는것은 ……[illegible]…… 그意味에잇서 現內閣의 國策審議의 中止는 ……[illegible]……

……◇……

……[illegible]…… 十二年度의 國防計劃을 갓고 豫算 그前年의 約三十億圓에 達하리라 ……[illegible]…… 十年間에 ……[illegible]…… 十七億圓가이의 國防費를 ……[illegible]…… 이데에 ……[illegible]…… 國民生活의 安定策을 ……[illegible]…… 只今으로서는 不許한다

……◇……

……[illegible]……

大同江産木 車特別取扱

朝鮮鐵道에서는 熙川大同江商產木材의 車扱特輸送契約을 締結하얏는데 特割輸送期間은 七月十一日부터 十月十一日까지이고 責任連數는 四千噸、割率은 二割五分引으로決定하엿다

日鑛産金擴充

【東京電話商通】日本鑛業은 去四月以降 每月一萬以上의 産金高를 示하야 盛況을 呈하고잇는데 아직增産의 餘地가잇슴으로(主로朝鮮)새로 五個年計劃으로 月産一噸半의 産出을하려고 調査研究中이다

朝鮮産無煙炭 消費狀態回復

上半期以來順調繼續

朝鮮産無煙炭은 出炭百萬噸을突破한後에 日本內地豆炭市場의 飽和狀態와 本炭의 壓迫으로不振을 繼續하고잇섯스나 그後合同된 新朝無는 總督府의 指導下에

一、新規販路開拓=코-크스原料發電用燃料로 積極的으로 販路開拓에 進出하야 消化量을 增大케하엿다

一、豆炭方面에의 統制販賣=豆炭原料에 統制잇는 販賣를 行하야 本炭에 壓迫되는 點을 카-바하얏다

一、豆炭、煉炭의 日本內地의 消費增大等으로 今年上期以來順調로 消化를 繼續하야 日本內地在庫는 今年特越은 前年보다 三割가량 많엇슴에不拘하고 最近의 在庫는 前年同期에 比하야 半減狀態로 憂慮되고잇든 朝鮮産無煙炭의 前途에 光明이 實來되엇다

忠北米在庫高

【淸州】忠北道內의 今年六月末日現在庫正租는 各郡正租倉庫에 百二十九石으로 合計 四萬五千一百二十一石을 示하고 잇는바 例年가트면 거이 全部가 出庫되어엇슬것이나 今年은 地主側이 오 淸農會倉庫에잇는것이 正租八千九百七十一石、玄米五千三百石이라는데 이는 現狀임으로 倒年보지못하든 在庫가잇다 한다

油脂、化學工業 試驗所新設

釜山이有力한候補地

總督府에서는 朝鮮工業의 躍進에 備하야 明年度 中央試驗所의機構를 擴充키로 決定하고 그豫算을 明年度에 要求하기로되엇는데 擴充案은 油脂、化學工業의 試驗設備를 새로 加하고 南朝鮮地方에 支所를 新設하는것인바 支所新設地는 모든條件에依하야 釜山으로되지안흘가생각되는바

結球白菜

그栽培는이러케

오늘에 結球白菜는 그種類가十餘種에 達하는바 그栽培法으로는 다음과갓다한다

一、土質은 排水가 잘되는有機質壤土 또는 砂質壤土에 基肥로 藁灰로된 堆肥 그리고充分히 腐熟한 堆肥를 每坪에三四貫씩 撒布한다 만약 充分히 腐熟치못한 荒肥이면 堆肥에서 굼벵이와 그밖게 根食害虫이생겨 그成長中 根部에 被害를當하야 枯死되는다 그리고밭은이八寸以上 一尺까지 深耕할일

二、播種은 中部朝鮮에限하야 八月五日로부터 同十日까지 線播 또는 點播한다 發芽後에三四次솎구며 이때에 最良한것으로 正三角形이나 正方形으로되게 間隔을 둘것이다 만약播種期에 旱災가甚하야 發芽가어려운때는 播種線마다 約五寸가량을 파고 물을 준뒤 물이수민때에 곳播種하고 細土로 덮퍼둘일

三、發芽後 害虫豫防으로 木灰五分三、硫黃五分一、石灰五分一을 섞거서 조금식 撒布할일

四、發芽後 七八日頃에 第一回除草時 稀薄한人糞을 施肥할일

五、처음 除草하고 十餘日이 지난뒤 第二次의除草를하고 이때에 充實한것을 남겨둘것이다 그리고 처음과가티 人糞尿 또는 암모니아 一五〇匁를 水一斗에 섞거서 施肥할일

六、第二次 除草後 날마다 아츰 저녁으로 白菜속의 虫을捕殺하고 또는 락대거로 白菜의 根部를 헤치고 굼벵이와 其他 害虫을捕殺할일

七、第二次除草하고 다시 十餘日이 지내인뒤 第三次除草할때 最後로솎구되업사귀가 丸形淡黃色、葉面에 細毛가 만코葉 莖이 純白色으로地面에 덥히퍼지는것은 害虫이잇는것임으로 이것을調査한뒤 正三角形이나正方形으로되게 原株一株식 남겨둘일

八、八月下旬頃 白菜根部의한쪽을 파고 大豆粕二合을 주고 다시 反對의쪽을파고 木灰一合餘를 준뒤 平平히 흙으로 덥허줄일

九、九月上旬頃엔 白菜周圍를 繩로 북도아주지말일

十、九月下旬頃부터 漸次結球期에 들어갈때에 三四日마다한번식 充分히 灌水하며 立冬前 기로 되어다

産組設置申請 五十餘組合

그中三十組合을嚴選

朝鮮의 産業組合運動은 玆一兩年來 依然 急速한 發展을 示하야 昭和九年에 僅僅 四十組合이든것이 今年四月에 九十二組合、組合員十五萬에 達하얏는데 今年에入하야 다시 各道의 産組熱은 促進되어 總督府에의 今年度設立申請은 五十組合을 超過하게되엇다 總督府에서는 今年度國費補助設立은 六組合의 豫算이잇슬뿐이나 慶南의 十六組合申請과 如함은 國費補助를 不要하고잇고 全北等의 自力設立의 要望도 잇서 愼重히 此等을 調査하야 基礎確實한것 約卅組合을 새로 認可할 方針인데 産組의 이러한 發展傾向은 注目된다고한다

殖産局內에 産業統制係

總督府殖産局에서는 十二年度以降 總督府商工課에 産業統制係를두고 産業統制事務를 管掌케 하려고 明年度新豫算에 要求하기로 되엇다

漁村의困境과 그實際的救濟策

朴炯壽 (4)

四、漁村의救濟策

1、漁具保障이急先務

무엇보다도 먼저 漁民들의 流離을 豫防케하여야할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當局者에게 無理한 要求는 하고십지안코 다만 能히 할수잇는 範圍에서 注文할수박게업다 그것은 다름것이아니라 漁民의 生命이오 漁民의 生活基本인 漁具 卽 漁船과 漁網 其他 什物에 對한 保障을하여야할것이다 最近 間島方面이나 西伯利亞等地로 流離漂浪하고잇는 불상한 朝鮮人은 그殆半이漁民들이다 이들이 여러가지 事情으로 不得已故土를 저바리지만은 그래도그들은 다 漁具를 負債가 過重하든지 收支不償이라든지의 事實보다도 當場延命이라도할 漁具가업서슨 것이 最大原因이다 漁民들은 農民보다 生活手段을 隨時變更하야 生活의 方便을圖謀할 수잇게도업스다 例를들면 農民들은 봄에 播種하면 가을이 오기前에는 收穫을 絶對어들수업지마는 漁民은 漁具만가지면 假令 鰮漁業을 하다가 漁獲이不完全하면 明太漁獲을 한다든가 大口漁獲을 한다든지 鯖漁業을 하다든지 時時로 變更할수가 잇는것이다 그럼으로 漁具만잇스면 어느程度까지는 糊口할수잇는것이다。 그런데 前述한바와가티 朝鮮漁民들의 漁具는 海葬되어버렷슴으로 이제는 漁民의 枯渴이 생기여 刺網漁民은 更生의 길이업게되엇다。

그런데 이것은 漁民自力으로나 民間의 謀策으로서는到底히 防止할수업는 問題이다 어느 金力가진 志士가잇서서 만흔 機械船을 購入하야 朝鮮漁民들의 漁區를 整備한다면모르거니와 이것은 夢想에 不過한일이라 다만 當局이 이에대한 對策을樹立하여야할것이다 너무大資本의 事業에만 關心하지말고 細民階級의 生活面을 잘觀察하야 生産을 圖謀케함이 爲政의道가 아닐가 생각된다

昭和九年度 各地漁業組合의 調査發表에 依하면 漁船每隻에 平均生産高 二千八百七十四圓五十三錢인데 (東海岸漁船一年間生産高) 其中에서 每隻生産費(雇傭其他漁具代包含)二千三百四十八圓三十八錢을 除하고보면 實益이 形式上으로는 每隻平均 五百二十六圓十五錢이 남으나 發動船으로因한 漁具의損失이 每隻九百八十五圓가량이라고하니 事實에 잇서서는 도리혀 損害를 當한셈이다 이것을모다 漁民每人當平均하야 負債로 돌리게되엇다

漁村負債의整理와 漁民負擔의輕減

漁民들은 前記와가티 特殊한 高金利制度 卽 商錢中心 加計高利制度가잇서서 아모리를 漁獲을 만나다고할지라도 그收入으로서는 그해의負債를 到底히 淸算할수업게되는것이다 그와反對로 아모리 凶漁年을만남다고하드래도 여러가지 漁期으로 轉換하는 技術을가지고잇기때문에 當年負債의 元金은 返償하게되는것이다 그럼으로 이負債를 整理하지안코는 漁民들의 生産을 助長할수업스며 또한 漁民自身 活動할 意慾을 喪失하야 恒常 怠業하고 ……

利라할수잇다 債權者들이 밧지안허도 損될것도업고 또한 漁民들이 睞怒하지안허도 그러케 無理한것은아니다 昨夏 漁村巡訪時 咸北어느漁村에들리어 하로밤 漁民들과 座談하게되엇는바 한漁民의 實談이 自己父親이 八年前에 어떤資本主에게 七十錢負債가잇섯는데 昨年까지 滿七個年동안 二百八十圓을 報償하엿다 하야 一座를 놀래게 하얏다 이것이 一個漁民에게 局限된 問題가아니고 普遍的으로 이러한 事實이잇는것이다 一年에도三四次식거매고 여러形態의 高利로 漁民을 結局 漁奴化하야 이미진 負債每人當二百三十圓은 아모리 産業이 隆興하고 豐漁的으로 好景氣의 時節을 맛난다하드래도 到底히 報償할可能性이업는것이다 그럼으로 이負債를 整理하지안코는 漁民들의 生産을 助長할수업스며 또한 漁民自身 活動할 意慾을 喪失하야 恒常 怠業하고 ……

狀態에 處할수밧게업게되다。漁村의 債權者中에 訓期的英斷을 發揮하야 率先對滅案가튼것을 提起할 者는업슬가 예수의 遺訓과가티 富者가天國으로 드러가기는 駱駝가 針孔으로드러가기보다 더어려다는셈으로 債權者가自發的으로 債權拋棄를 斷行하기는 바랄수업슬것이다 그러나 한거름더나아가서 그負債의 性質을解剖한다면 拋棄한대도 어굴할것은 못된다 마약 當局이 漁村의實面에 손대여 徹底히解明한다면 漁民負債의 免償하야도 조흘것이 만흘것이다

負債輕減은 여러가지잇지마는 公課金外에 漁業組合에서 任意로課하는 負擔을免先輕減하여야될것이다 또한公課金에 잇서서도 언제나 生活의 餘裕에서 納付할形便은못되다 그러니까 公課金의 多少를 不拘하고 支出할氣力이 업시되엇것이 現狀이다 그러나 漁民들이란 純朴하야 賦課만 ……

로서 勞働力을 搾取하여서라도 負擔을 깨끗이 履行하는 것이다 그런中 漁業組合이漁民에게 直接課하는 過重한負擔金은 免除하기 容易할줄로 안다 이외가튼 負擔을 漁民에게 課하지안허도 利權에서 正常的으로 生하는 收入과償付額의 金利로라도 人件費와 經常費를 支出할수잇슬것이다 그리고 漁民들의 負擔中에도 不當한것이 하나잇스니 그것은 間接的 負擔이다 이間接的負擔이란것은 漁民이 負擔하는것이면서도 直接漁民의 손으로 支拂치안코 加工業者인工場業者나 買易商의 손으로支拂되는것이다 例를드러말하면 水面使用料가튼것은 工場業者나 明太乾燥業者(半買商商)이負擔하야도 조흔것이이 것을 漁民層에 轉嫁시키고잇다 이것을 轉嫁시킨은 直接漁民들에게서現金으로 바더내는것이아니고 漁民이 잡어온 生産物은 모두 自己들의 手中에 드러오는것을(負債)가잇던어런) 生産物價格 決定時 水面使用料 幾何라는것은 벌서 價金中에서 先除하고서 支拂하고잇는것이다 그러니까 形式上으로 보다면 自己들이 支拂하는것 갓지마는 事實에잇서서는 漁民들이 支出하고 잇는것이다 그러면 이외가튼 負擔은 漁民들이 當然이 負擔할것이 못되는것이나 하면 何等 賣擔할것이 못되는것이다 그것은 製造業者나 乾燥業者들이 負用하고잇는 水面이니 그들이 負擔하여야 事理에 當然할것이다 以上에 記述한 公課는 當局者에 一任하야 解決하는 公課를 整理 한것을 바랄수박게업지마는 負擔은 當局 指導하야도 조흔것이죽 곳實現될 問題라고 바이다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六六八九	平北寧邊郡北新峴面	七月七日	京城府漢江通 荒井初太郎
一二三四八	平北寧邊郡梧里面延山面	七月七日	京城府古市町 朝鮮砂金鑛業株式會社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三〇七五	平南平原郡德山面青山面	七月三日	吳泰俊任意脫退登
八五六〇三	咸南定平郡長原面	七月四日	赤坂安藏任意脫退登
一〇四七九	忠北堤川郡寒水面德山面	七月七日	趙昌鎬任意脫退登

◇鑛業代理人屆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鑛業權者	事項
一一〇九七	慶南密陽郡上南面	鄭貴連	昌原郡鎭海邑明田早苗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 昭和十一年六月十六日屆出
八五一三	咸南定平郡府內面	方祿鎬	定平郡府內面芝相寅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 昭和十一年六月十七日屆出
一一五四八	忠南保寧郡川北面	朝鮮製鍊株式會社	保寧郡川北面森定次郞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 昭和十一年六月十七日屆出
四五二六	同	同	鑛業代理人川口寅之助解任하고扶餘郡場岩面森定次郞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 昭和十一年六月十七日屆出
三八五三 九六八四	同扶餘郡場岩面大川面·德郡柳川面村城面	同	鑛業代理人森定次郞을解任하고扶餘郡場岩面川口寅之助를鑛業代理人으로選定 昭和十一年六月十七日屆出
八〇八三	同槐山郡曾坪面	同	槐山郡曾坪面山田嘉吉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 昭和十一年六月十八日屆出
一三〇一七	咸南定平郡高山面	三菱鑛業株式會社	定平郡高山面中倉問八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 昭和十一年六月十八日屆出
一二三一七	江原[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〇一三	咸平[illegible]	金相彦	[illegible]
八七九六	[illegible]	金東[illegible]	[illegible]
六九一五 七四三六	咸南永興郡[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三七一	平北[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春繭共販消息一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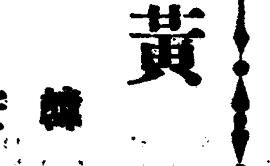
▲永興 咸南永興郡農會主催春繭共販은 今年度에 一萬二千八百貫을 期待하엿는바 今年은 氣候不順으로 豫定量에 達치 못하고 ……[illegible]…… 千貫이란 巨大한 數字를 올렷다고하며 그量도다시 代金으로 따지보면 四萬圓以上이라고하는바 今年度共販數는 昨年度에比하야 約七割以上이 增加되엇다한다

春繭取引市勢

(農林局發表)

月日	所在地	種別	最高	最低	賣出	數量	代金
一七二	咸興、端川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七三	同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七二	同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咸北、城津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七二	平北、雲山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七三	咸南咸州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七三	咸南端川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咸北城津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昏 (186)



韓雪野 作 · 安夕影 畵

그뒤에오는것(一)

섬선한바람이 떼러지면서부터 준식이와 키보와 김렬이는밤 한가운 어데가지고 셋이 동거하고 잇섯다

저녁후 키보가 무슨볼일이잇서서 어듸로 나간다음 준식이가 누어서 무슨책을 보고잇스려니까 길렴이가 비위청으로무슨소리처 알수업는 노래를 부르기에 준식은

『이놈아 떠들지말어』

하고 우스며 길렴의 엉구리를 쿡찌려주엇스나 그래도 길렴이는

『거 청국아리랑일세』

하고 픽웃고는 마치 깡깡이 켜는것가튼소리로 그노래에 구절이맛도록 미간을 쪼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핑이 하이아 쌍하이야!』

하고 뒤것을 놉게까고는、다시 이어서、

『리잉 파이야 이파이야 싸ー듸ー야 만듸ー야ー』

하고 제낌에 흥이 겨워남뭇 이 목소리를 꼬불 꼬불 꼬아 가다가、어려운 곡목이나 마친듯이 쪼그린얼굴을 우슴으로 편다。

『거、뭐라는 소리냐?』

『거 무슨소리나 말이지?……』

알고보면 아주거막힌소리세……

조선으로치면아리랑 한거지야』

『아니 가사의뜻이 뭐냐말이야』

『가사?……』

『그래 그사설이뭐냐말이야?』

『오ー 건줄라』

『모르는데 아리랑 한거지야?』

어떠케 아니?』

『나두 야채장수 왕서방한테서 뱃는데……왕서방도 뜻은 모르데。그저 아리랑한거라구하니까 그런줄알지……암、왕서방、조선말 잘하다마다』

『거 한번 더해봐라』

『이서람아、도추고 뱀건데 그

리게……』

『에라 그럼 그만둬라……무엇 두 돗자리며노면 안된다구……

자이 그럼 이거나 읽어봐라』

그깡깡이청으로……』

『어이 끈헤……어ー헝』

하고 길렴이가 기저개를켜며 고개를 쑤욱 치어가라는것을 준식은 머리맡에 잇는 일본어 노트며 양해 보는책을 밧삭내어던주다。

그러나 길렴이는 재만보면 잠듸이라 얼굴이 훼를 훈측해지고 입맛을 씁 훌어진다。것보기에는 아무 령리한것갓지만 굴에안는 사뭇 둔한편이다。그래서 열 마듸를 부처내려가라면『거시이』라고 하는따위 군중

시 이어서、

로리 제낌 ……

라는것이다。

『자아……』

『어서 한번 읽어보람 밤야

『그로분 쳥으로……』

하고 준식이가 그의얼굴을쳐다 올라오더라 박게서 가는다란 소리가 들려왓다—

『주사씨 기십니까?』

그러나 준식은 제말소리때문에 그소리를 듯지못하엿다

『이키 와라 왓서』

하고 길렴이는 재바르게 일어서 여럿 문을 열고、

『네、잇슴니다。들어오서요』

하고 반가워 맛는다 려순이가 차져왓든것이다、려순은 그새에 두멀 이집에 온일이잇서서 길렴이도 키보도 못이사나 밧구게되엿다。

『아니、잠시 만나뵈고……』

하고 려순이가 마루앞에서 주저 울어나 바그로 나와서 준식이가 훌 옷이 들어다볼때에、

『아 오섯습니까?들어오서죠』

적 『안에요……잠시……』

그자리 준식은 무슨 중용한 이야기가 잇는것을 아라채고 마루에 내려섯다。

그리구는 길렴이는 들을수업 시 들이서 맷마듸 수군수군하 더니

『갑니다……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려순이가 버리고 준식이 문 밧그로 나가는 ……[illegible]…… 만 다시 방으로 들어왓다。

『이것 무슨셈이냐 ……』

『거 무슨셈바람이 불엇나?』

『아니 고런일이 좋 잇서』

하고 저……』

『어레 조용한 ……』

그래저 길렴이거 ……

『이놈아 그때 ……』

하고 의미업시 웃는것을 ……

말이냐?』

식은

『……』